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이 지각한 응급구조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박정미^{1*} · 김수민²

¹대한응급구조사협회, ²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Comparison of paramedic image and its determinants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Jeong-Mi Park^{1*} · Su-Min Kim²

¹Kore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ssociation

²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yungil University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aramedic image and its determinants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Methods: From September 18 to 26, 2013,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universities students by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paramedic image score was 4.22 for paramedic students and 3.89 for non-paramedic students. The paramedic students had a more positive paramedic image than the non-paramedic students. Among three subcategories of paramedic image, professional image was selected as the most positive factor. The determinants of paramedic image differed between the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The mean subjective determinants score showed higher than those of any other determinants for both student group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practical strategies are needed to promote a positive paramedic image among non-paramedic students.

Keywords: Paramedic, Image, Image determinants

Received June 19, 2015 Revised July 14, 2015 Accepted August 19, 2015

*Correspondence to Jeong-Mi Park

4th floor, Daeyoung bulding, 117, Daehyeon-ro, Buk-gu, Daegu, 41569, Republic of Korea

Tel: +82-53-526-3288 Fax: +82-53-526-3289 E-mail: emsjm@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현장과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종이자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조사가 1995년부터 양성되기 시작했으며[1], 병원전 단계에서 중추적인 응급처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응급구조사 직종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폭넓은 직업이미지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에는 직업적인 존경심, 문제해결능력과 통찰력, 혁신, 확고한 지적인 내용, 창작과 창조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 이미지는 태도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직업에서 나타나는 인상으로 직업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일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과 정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가능한 속성이 있으므로 의사결정과 행동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응급구조사의 직업이미지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이 인지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의 전문적 발전과 응급구조사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이미지 제고는 중요하므로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응급구조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4,5]와 응급구조학과 학생[6,7]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는 기초단계에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중등교사[8]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시각에 대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응급구조사 자신의 발전과 타인이 보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정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직업이미지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3]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직업이미지를 이해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파악한다.
- 2)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이 지각한 응급구조사 이미지를 항목별로 비교한다.
- 3)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이미지 결정요인을 확인한다.
- 4)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을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타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을 비교·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지역 K대학교 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였으며, 총 150부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146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응급구조사 이미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Yang[9]의 도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30개 문항의 도구를 5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전문가 3인을 통해 문항을 정리하였으며 전문적 이미지 8문항, 사회적 이미지 10문항, 개인적 이미지 6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Yang[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0$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940$ 였다.

2)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본 연구는 Yang[9]의 이미지 결정요인 도구를 응급구조사에 대한 용어로 수정하여 5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전문가 3인을 통해 문

항을 정리하였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결정요인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0$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기술통계, t-test와 ANOVA, 사후비교 검정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항목별 응급구조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은 평균, 표준편차와 순위로 기술통계하였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값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45.9%, 남자는 55.4%, 타 학과는 공학계열 22.6%, 인문사회계열 19.9%, 보건계열 6.8%, 예체능계열 4.8%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중 119 신고경험이 있는 경우는 8.2% 정도에 그쳤다.

응급구조사의 전체 이미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이 인지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Table 1. Images of paramedic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t/F	<i>P</i> (Scheffe)
Department	Paramedic	67	(45.9)	4.22 ± 0.43	18.400	< .001
	Non-paramedic	79	(54.1)	3.89 ± 0.48		
Professional	H&SS*	29	(19.9)	3.99 ± 0.44 ^a	5.171	.001 (b < e)
	Engineering	33	(22.6)	3.80 ± 0.47 ^b		
	Public health	10	(6.8)	3.86 ± 0.51 ^c		
	FA&PE [†]	7	(4.8)	4.04 ± 0.55 ^d		
	Paramedic	67	(45.9)	4.22 ± 0.43 ^e		
Gender	Male	81	(55.4)	3.98 ± 0.48	3.368	.069
	Female	65	(45.5)	4.12 ± 0.48		
Grade	Freshman	68	(46.6)	4.07 ± 0.54	.242	.867
	Sophomore	39	(26.7)	4.02 ± 0.41		
	Junior	30	(20.5)	4.00 ± 0.45		
	Senior	9	(6.2)	4.12 ± 0.50		
119 call experience	Yes	20	(8.2)	4.01 ± 0.56	.116	.734
	No	126	(91.8)	4.05 ± 0.47		

*H&SS: Humanities & social science

†FA&PE: Fine arts & physical education

이미지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3.80점),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 이미지 점수(4.22점)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성별, 학년별, 119 신고 경험 유무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항목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비교

항목별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응급구조사 이미지의 전체 평균은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4.22점이었고, 타 학과 학생은 3.89점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 이미지의 하부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37점), 그 다음이 사회적 이미지(3.97점), 개인적 이미지(3.7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이미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4.55점)였으며, ‘응급구조사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4.43점), ‘응급구조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고 있다’(4.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잘한다’(4.67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응급구조사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4.61점)였는데 타 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4.52점)가 가장 높았고 ‘응급구조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4.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미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긴장의 연속이다’(4.29점)였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신속하다’(4.51점), ‘응급구조사는 긴장의 연속이다’와 ‘응급구조사는 책임감이 강하다’(4.43점)였고, 타 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는 힘든 직업이다’와 ‘응급구조사는 긴장의 연속이다’(4.18점)였고, 그 다음이 ‘응급구조사는 신속하다’(4.09점) 순이었다.

개인적 이미지 영역에서는 모두 ‘응급구조사는 적극적이다’(4.13점)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그 다음으로 ‘응급구조사는 믿을만하

Table 2. Paramedic image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N=146)

Items	Paramedic students (n=67)		Non-paramedic students (n=79)		Total		
	M±SD	Ranking	M±SD	Ranking	M±SD	Ranking	
Professional image	Paramedics are skillful in CPR*.	4.67±0.61	1	4.19±0.76	6	4.41±0.74	4
	Paramedics are expert in their professional skills.	4.61±0.54	2	4.28±0.76	4	4.43±0.69	2
	Paramedics are necessary.	4.60±0.57	3	4.52±0.59	1	4.55±0.59	1
	Paramedics hav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4.55±0.58	4	4.30±0.70	2	4.42±0.66	3
	Paramedics are doing valuable and heartwarming things.	4.55±0.55	4	4.29±0.71	3	4.41±0.66	4
	Paramedics are always put their patients life first	4.42±0.89	9	4.27±0.81	5	4.34±0.85	6
	Paramedics are a patron of patient's life.	4.33±0.61	11	4.15±0.68	9	4.23±0.65	10
	Paramedics are mastery on the first aid.	4.42±0.78	9	3.95±0.90	13	4.16±0.88	12
Subtotal	4.51±0.42		4.24±0.51		4.37±0.49		
Social image	Paramedics are doing hardworking jobs.	4.33±0.58	11	4.18±0.79	7	4.25±0.71	9
	Paramedics have promptness.	4.51±0.56	6	4.09±0.72	10	4.28±0.68	8
	Paramedics are under the continuous of tension.	4.43±0.58	7	4.18±0.79	7	4.29±0.72	7
	Paramedics are strong in responsibility.	4.43±0.55	7	4.06±0.74	11	4.23±0.69	10
	Paramedics are very devoted.	4.16±0.86	18	3.85±0.83	17	3.99±0.86	16
	Paramedics have high level of social status.	2.48±0.70	24	2.58±0.81	24	2.53±0.76	24
	Paramedics are a guardian angel.	4.21±0.68	17	3.92±0.84	14	4.05±0.79	16
	Paramedics have pride on their job.	4.33±0.68	11	3.89±0.76	15	4.09±0.76	14
Subtotal	4.11±0.38		3.84±0.49		3.97±0.46		
Personal image	Paramedics are cooperative.	4.07±0.70	18	3.44±0.85	23	3.73±0.85	22
	Paramedics are trustworthy.	4.28±0.59	15	3.89±0.87	15	4.07±0.79	15
	Paramedics are taking up the running.	4.07±0.74	19	3.71±0.81	18	3.88±0.80	19
	Paramedics are cool person.	4.24±0.74	16	3.68±0.88	20	3.94±0.87	18
	Paramedics are very active.	4.33±0.63	11	3.96±0.79	12	4.13±0.75	13
	Paramedics have friendly attitude.	4.00±0.85	21	3.61±0.82	21	3.79±0.86	20
	Paramedics are altruistic.	3.91±0.81	22	3.65±0.75	19	3.77±0.79	21
	Paramedics are honest.	3.81±0.85	23	3.54±0.74	22	3.04±1.08	23
Subtotal	3.98±0.53		3.63±0.53		3.79±0.56		
Total	4.20±0.39		3.90±0.45		4.04±0.46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다'(4.28점)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4.55점)였고 그 다음은 '응급구조사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4.43점)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2.53점)였으며 그 다음이 '응급구조사는 정직하다'(3.04점)였다. 문항별로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들의 이미지 점수의 순위를 볼 때 1~4순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5순위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의 달인이다'와 '응급구조사는 협조적이다'라는 항목이었다.

3.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는 <Table 3>과 같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점수는 3.82점으로 나타났고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3.94점, 타 학과 학생은 3.71점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을 영역별 점수를 보면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4.10점), 매체적 요인(3.90점), 제도적 요인(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응급구조사의 적극성(4.19점)이었으며, 응급구조사의 신속성(4.17점), 응급구조사의 환자입장 배려

Table 3. Image determinants of paramedic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N=146)

Determinants	Paramedic students (n=67)		Non-paramedic students (n=79)		Total		
	M±SD	Ranking	M±SD	Ranking	M±SD	Ranking	
Subjective factor	Trustworthy of paramedic	4.22 ± 0.69	3	4.06 ± 0.79	5	4.14 ± 0.75	4
	Direct contact of paramedic	4.16 ± 0.75	4	3.89 ± 0.96	9	4.01 ± 0.88	8
	Kindness of paramedic	4.06 ± 0.73	10	3.92 ± 0.79	8	3.99 ± 0.77	10
	Promptness of paramedic	4.12 ± 0.64	7	4.22 ± 0.67	1	4.17 ± 0.66	2
	Paramedic's consideration of patients' condition	4.16 ± 0.64	4	4.15 ± 0.78	2	4.16 ± 0.72	3
	Paramedic's sacrifices and service mind	4.07 ± 0.70	9	4.10 ± 0.81	4	4.09 ± 0.76	6
	Role of paramedic	4.25 ± 0.65	1	3.99 ± 0.79	6	4.11 ± 0.74	5
	Activeness of paramedic	4.24 ± 0.69	2	4.15 ± 0.76	2	4.19 ± 0.74	1
Subtotal	4.16 ± 0.51		4.06 ± 0.59		4.10 ± 0.56		
Systematic factor	Uniform of paramedic	3.97 ± 0.71	11	3.44 ± 0.93	13	3.68 ± 0.88	12
	Paramedic's conditions of employment	3.94 ± 0.83	12	3.61 ± 0.91	11	3.76 ± 0.89	11
	Shift system of paramedic's duty	3.16 ± 0.97	15	3.28 ± 0.94	14	3.23 ± 0.96	14
	Academic qualification of paramedic	3.54 ± 0.80	14	2.77 ± 0.01	15	3.12 ± 0.99	15
Subtotal	3.65 ± 0.54		3.27 ± 0.57		3.44 ± 0.59		
Media factor	Described in teleplay	4.12 ± 0.86	7	3.96 ± 0.83	7	4.03 ± 0.85	7
	Described in newspaper account	4.16 ± 0.73	4	3.89 ± 0.89	9	4.01 ± 0.83	8
	Self-image of paramedic	3.75 ± 0.72	13	3.59 ± 0.88	12	3.66 ± 0.82	13
Subtotal	4.01 ± 0.58		3.81 ± 0.64		3.90 ± 0.62		
Total	3.94 ± 0.42		3.71 ± 0.46		3.82 ± 0.46		

(4.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요인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응급구조사의 역할(4.25점)이었으며, 응급구조사의 적극성(4.24점), 응급구조사의 신뢰성(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타 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의 신속성(4.2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급구조사의 환자에 대한 배려와 응급구조사의 적극성(4.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의 복장(3.97점)이었으나 타 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의 근무환경(3.61점)이었다.

매체적 요인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신문 상에 나타난 기사(4.16점)였고, 타 학과 학생은 TV에 표현된 응급구조사(3.96점)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들의 결정요인을 볼 때 대체로 1~2순위의 차이가 있었으나 5순위 이상차이를 보인 항목은 5개 항목이었는데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의 직접 경험과 응급구조사의 역할, 응급구조사 관련 기사 항목이었고, 타 학과 학생들

에게 높은 점수를 보인항목은 응급구조사의 신속성과 응급구조사의 희생과 봉사정신 항목이었다.

이미지 결정요인의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의 학력(3.12점)이었고, 그 다음은 응급구조사의 교대근무(3.23점), 응급구조사의 자아상(3.66점) 순이었다.

4.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1$). 하위 영역인 전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 모두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01$).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3$), 세부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제도적 요인이었다.

Table 4. Difference of paramedic image and Image determinants between paramedic and non paramedic students (N=146)

Variables	Paramedic students	Non-paramedic students	t	p	
	M±SD	M±SD			
Image of paramedic	Professional image	4.49 ± 0.42	4.19 ± 0.51	14.160	<.001
	Social image	4.12 ± 0.38	3.80 ± 0.51	17.181	<.001
	Personal image	4.05 ± 0.60	3.69 ± 0.54	15.094	<.001
Total	4.22 ± 0.43	3.89 ± 0.48	18.400	<.001	
Image determinants	Subjective factor	3.87 ± 0.51	4.06 ± 0.59	1.205	.274
	Systematic factor	3.65 ± 0.54	3.27 ± 0.57	16.568	<.001
	Media factor	4.01 ± 0.58	3.81 ± 0.64	3.688	.557
	Total	3.94 ± 0.42	3.71 ± 0.46	9.052	.003

IV. 고 찰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4.22점)이 타 학과 학생(3.89점)보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학과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입학한 경우에는 학과 선택에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년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미지가 낮아진다는 연구[7]에서 볼 때,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려한 교과목 활동이나 교내활동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타 학과 학생들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직종에 대한 생소한 영역이나 직접적인 접촉의 부재로 인한 것이 주요인으로 생각된다. 중등교사나 일반시민들이 지각하는 응급구조사 이미지가 각각 7점 만점 중 5.68점과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난 결과들[8,10]을 볼 때, 대학생보다는 일반인이 인지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등교사나 일반시민이 대중적인 홍보매체에 더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을 접하고 응급구조사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의료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5,11]는 5점 만점 중 3.25~3.27점으로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보건관련 종사자들에게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의 하부영역 중에서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응급의

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5]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경우[7]에서도 응급구조사의 전문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5]에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직업의식(4.49점)과 전문성(3.46점)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업무(3.43점)에도 높은 점수를 보여 응급의료인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Hwang과 Uhm[7]의 연구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실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현장대응과 사회적 리더의 역할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타 전문직종의 연구들[12-14]을 볼 때 전공학생들이 가지는 해당 직종의 직업이미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Kim[15]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 역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타전공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문적 이미지 중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심폐소생술을 잘한다’,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항목으로 응급구조사의 핵심 역량부분에 대한 항목인 반면 타 학과 학생들은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와 같이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의 차이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응급구조사의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중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였는데 Yun 등[4]과 Han 등[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계적이고 타성적이다’라는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Yi와 Oh[6]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응급구조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미지는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개인적 이미지 중에서 ‘응급구조

사는 정직하다' 항목이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un 등[4]의 경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3차 의료기관내에 근무하는 응급 의료종사자들의 경우[5]에는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므로 향후 응급구조사의 어떤 이미지가 정직하지 못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중에서는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이 매체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지가 주관적인 사람들이 진실된 것으로 믿는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16]로서, 종합적인 경험의 결과에 의해 형성되므로 고정관념처럼 잠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17]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이미지 연구[9,18]에서도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나 제도적 요인이 매체적 요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 점은 본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간호사의 직종보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생겨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매체적 요인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더 작용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급구조사의 역할, 응급구조사의 적극성, 응급구조사의 신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지만 타 학과 학생들은 응급구조사의 신속성과 응급구조사의 환자에 대한 배려 항목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비중 있는 항목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응급구조사의 신속성과 환자에 대한 배려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소임을 기억하고 또한 교과과정 내에서 이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

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중 제도적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간호과 학생들과 비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연구[15]에서도 간호과 학생이 비간호과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가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이 가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또한 요구된다.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가장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19]는 것을 보더라도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제도적인 요소를 고려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응급구조사 이미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구조사 이미지 영역 중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타 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 등 일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점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응급구조사의 적극성, 응급구조사의 신뢰성이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었고 타 학과 학생들은 응급구조사의 신속성이 가장 높은 이미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

타나 타 학과 학생들에게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의 경우 학내외 행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봉사를 통한 부단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미지 결정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Korea. Available at: <http://www.moleg.go.kr/main.html>, 2013.
2. Im MR. Research on contents analysis on image of nursing on television drama. *Nursing Science* 1995;7:64-83.
3. Lee SM, Park KS. A Q-methodological study on the professional image of a dental hygienist.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1999;3(2):73-94.
4. Yun JG, Chung Y, Park MY. Analysis on image and job perception of EMTs among nurses.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2004;9(2):41-57.
5. Han SI, Bae KS, Kim JU. Images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ived by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2(4):373-9.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4.373>
6. Yi IS, Oh JH. A study on the job image of EMTs.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08;(16):149-60.
7. Hwang SH, Uhm DC. Factors influencing the image abou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obs in paramedic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14;18(3):63-75. <http://dx.doi.org/10.14408/KJEMS.2014.18.3.063>
8. Choi EY, Lee KY. Images towar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erceiv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 *Korean J Emerg Med Ser* 2014;18(1):29-41.
9. Yang IS.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 Korean Acad Nurs Adm* 1998;4(2):289-305.
10. Uhm DC, Kim JW. 119 Rescuers' image of citize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5):2259-66. <http://dx.doi.org/10.5762/KAIS.2012.13.5.2259>
11. Yun EJ. A study on the type of hospital nurses' professional nursing image: A Q-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cad Nurs Adm* 1996;2(2):17-42.
12. Kang HY, Go MH, Yang JJ, Kim S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003;33(6):792-801.
13. Kang HS, Kim WO. Changes in the image of the nurse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Fundam Nurs* 2002;9(3):379-87.
14. Choi J, Ha N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09;8(1):54-63.
15. Lee Sh, Kim JA.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 Adm 2006;12(1):52-62.
16. Barich H, Kotler P. A framework for marketing image management. *Sloan Manage Rev* 1991;32(1):94-105.
 17. Jeong JH. Applying Q-methodology to analyze the image and image determining factors of academic librari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7, Seoul, Korea.
 18. Jeong HS, Yoo YS.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0;24(1):29-38.
 19. Seo EH.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and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Adm* 2009;15(4):610-6.